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율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 보았던 하나님께 대한 제사법이나 여호와의 절기 등과는 다른 것으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관한 법인 생활 율법입니다. 이 율법들은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신21:9). 또한 이 율법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포로로 잡힌 여인에 관한 것뿐 아니라 짐승과 가축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신22:6-7, 10)을 요구하는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상 생활에 관한 것들까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대상16:34).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시25:8).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롬7:12).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라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그에 걸맞게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13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지키는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바로 하는 것이 그 행위 자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을 일이라 생각하여 억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짐이라고 생각하여 부담을 갖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고 상대방이 기뻐할 것을 상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한 것이 일이 되고 짐이 되어서 억지로 하고 있다면, 먼저는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율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벌을 받지 않으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할 때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분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과 벌 받지 않으려고 그것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율

법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 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교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율법에 대한 동기가 선한 사람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를 지킨 것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항변합니다. '이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자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무언가를 지켰다'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는 바로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중한 죄를 지은 죄인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참 회개를 하다가도 나보다 더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정도 회개 했으면 됐지 나 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다가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착한 죄인이라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주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주님께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일 뿐임을 시인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키고 지키다 결국에는 못 지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속량하신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